

2024
1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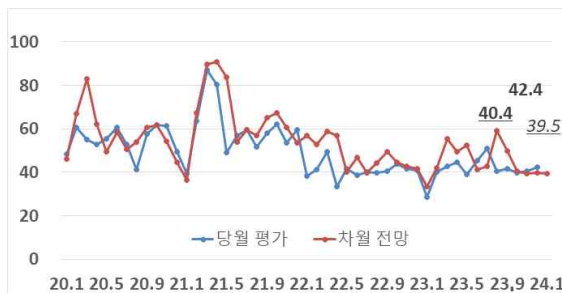
I. 2023년 12월 건설경기평가 및 2024년 1월 전망

■ 12월의 경기평가는 전월 수준, 1월도 유사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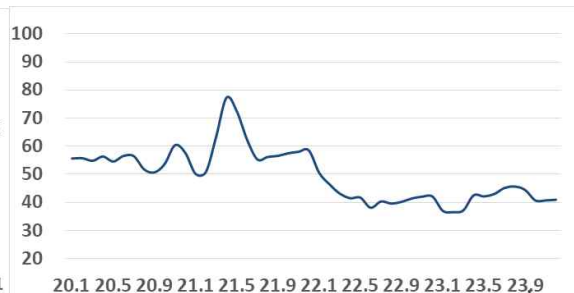
- 지난 12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42.4로 전월(40.4)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2.0p), 이번 1월(39.5)에도 급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자재·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공사예정가액, 생산 체계개편에 따른 업역충돌 및 입찰경쟁 심화 등이 부각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2.0(26.1→42.0)으로 전월의 하락세를 일정수준 회복했으며(+15.9p), 지방은 42.6(45.1→42.6)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함(-2.5p).

〈표-1〉 2023년 12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4년 1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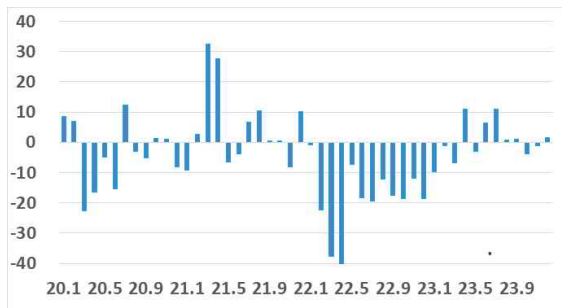
구 분	종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3년 12월 평가	42.4	40.8	42.0	42.6	39.4	48.3
2024년 1월 전망	39.5	33.5	50.0	35.2	45.5	35.0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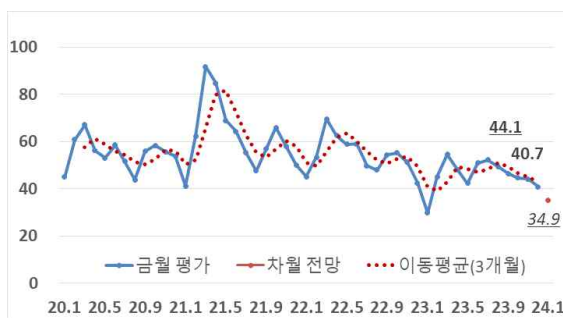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소폭 하락, 하도급은 소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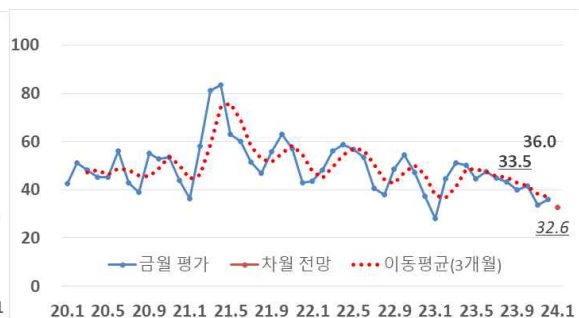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40.7(44.1→40.7)로 전월보다 하락했으며(-3.4p) 전년 동월(42.4)과 일부 차이를 보였음. 하도급수주는 36.0(33.5→36.0)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며(+2.5p) 이는 전년 동월(37.2)과 유사한 수준임.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39.1→34.0)에서 하락했으며(-5.1p), 지방(45.8→43.4)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2.4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41.3→48.0)에서 일부 개선되었지만(+6.7p), 지방(38.0→25.4)에서는 크게 악화된 것으로 집계됨(-12.6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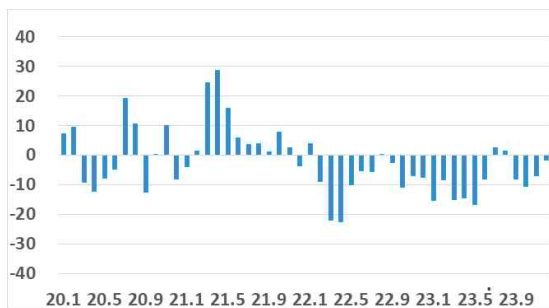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3년 12월 평가	40.7	42.4	34.0	43.4	27.3	50.0
	2024년 1월 전망	34.9	34.6	56.0	26.2	54.5	31.7
하도급 수주	2023년 12월 평가	36.0	37.2	48.0	31.1	45.5	38.3
	2024년 1월 전망	32.6	32.5	50.0	25.4	51.5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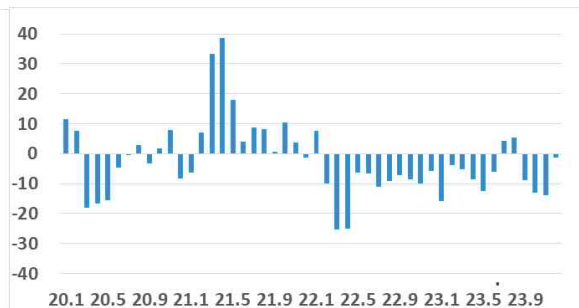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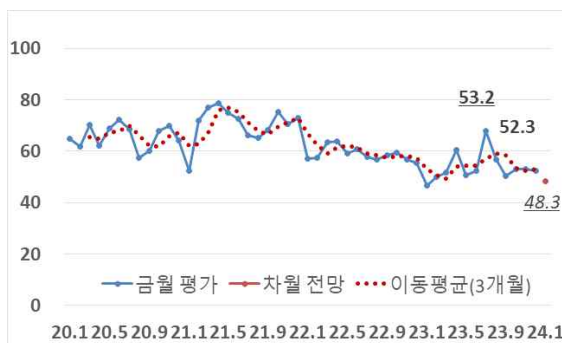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전월 수준, 자금조달지수는 소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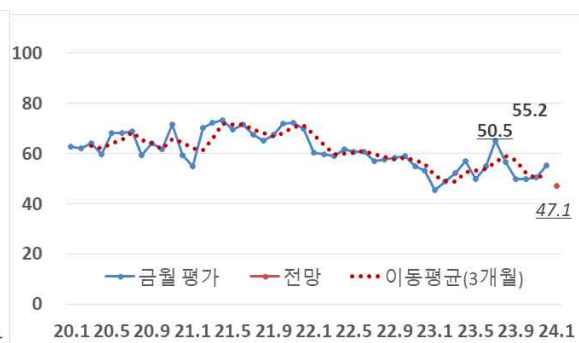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2.3(53.2→52.3)으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0.9p), 차월인 1월(48.3)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4.0p).
 - 수도권(39.1→46.0)은 상승한 반면(+6.9p), 지방(57.7→54.9)은 소폭 하락함(-2.8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5.2(50.5→55.2)로 개선되었으나(+4.7p), 다음 1월(47.1)에는 다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금월에는 자금흐름 문제에 대한 응답업체들의 지적이 많았는데 주된 사유는 인건비 상승과 자재비의 선지금 요청에 따른 유동성 저하, 원도급업체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현금흐름 측면의 불안감이었음. 또한 PF시장의 불안상황도 한 요인으로 추정됨.
 - 수도권(43.5→54.0)은 크게 개선(+10.5p), 지방(52.8→55.7)도 개선세를 보였음(+2.9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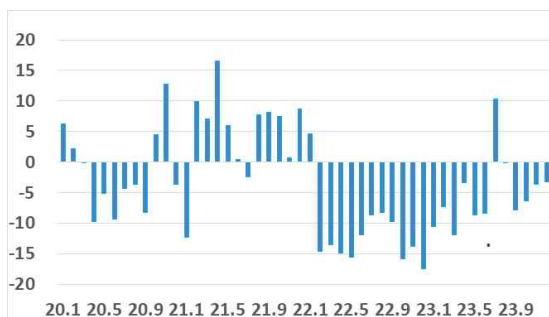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3년 12월 평가	52.3	55.5	46.0	54.9	39.4	51.7
	2024년 1월 전망	48.3	46.1	62.0	42.6	60.6	40.0
자금조달	2023년 12월 평가	55.2	53.4	54.0	55.7	48.5	55.0
	2024년 1월 전망	47.1	44.0	52.0	45.1	48.5	45.0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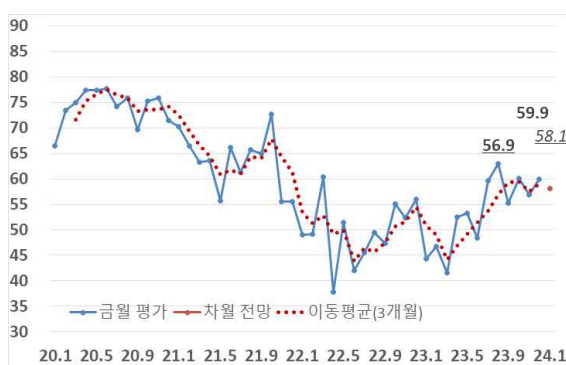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은 소폭 개선, 기능인력수급은 전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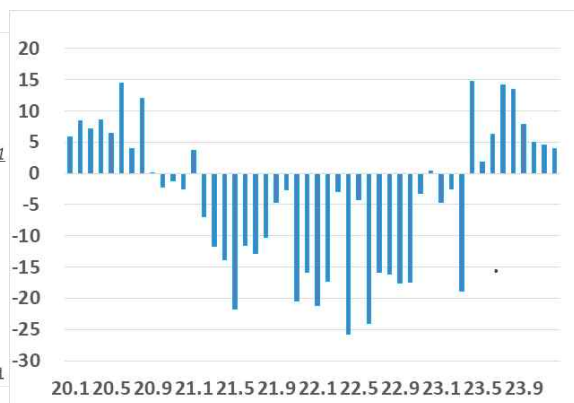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59.9(56.9→59.9)로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3.0p), 업황이 나빴던 전년 동월(56.0)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음. 이번 조사에서는 건설노조의 문제가 전문건설업체의 자금난과 연계되어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됨.
 - 수도권(58.7→54.0)은 전월에 이어 소폭 하락했지만(-4.7p), 지방(56.3→62.3)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6.0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는 66.9(68.6→66.9)로 전월의 수준이 지속됨(-1.7p). 이는 전년 동월(62.8)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응답업체들은 기능인력의 수급문제를 '지속적인 기능인력의 감소'라고 표현할 정도의 큰 현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수도권(58.7→56.0)은 소폭 하락했지만 전월과 큰 차이는 아니었으며(-2.7p), 지방(71.8→71.3)은 사실상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됨(-0.5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3년 12월 평가	59.9	56.0	54.0	62.3	45.5	71.7
	2024년 1월 전망	58.1	49.2	60.0	57.4	57.6	66.7
인력수급	2023년 12월 평가	66.9	62.8	56.0	71.3	54.5	71.7
	2024년 1월 전망	69.8	63.4	66.0	71.3	63.6	75.0



〈인건비 체감 (개선·악화정도)〉



〈인건비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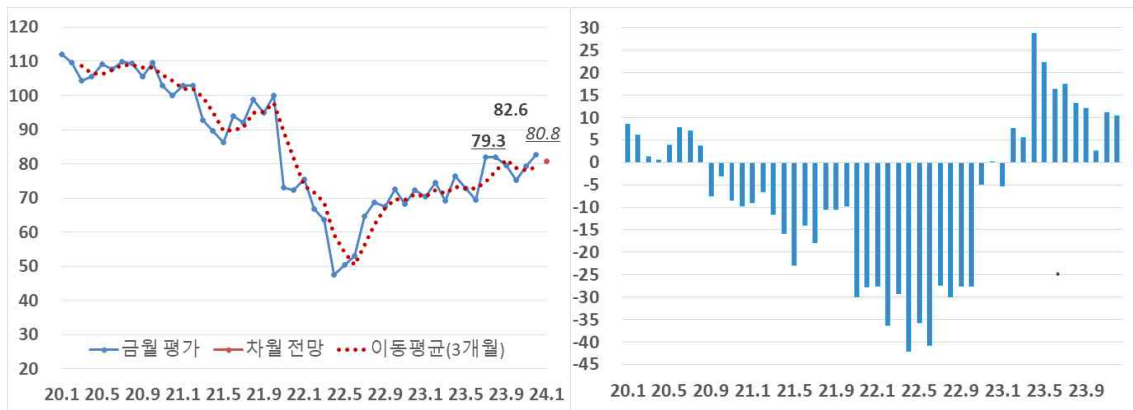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는 개선, 자재수급지수는 연이어 개선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⁵⁾⁶⁾는 55.8(50.5→55.8)로 전월보다 개선되었으며(+5.3p) 차월(56.4)에도 비슷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자재비의 경우에는 종전보다 크게 급락하는 등의 시장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수도권(52.2→48.0)은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4.2p), 지방(50.0→59.0)에서는 전월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9.0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⁷⁾는 82.6(79.3→82.6)으로 전월에 연이어 개선되었으며(+3.3p) 차월(80.8)에도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1.8p). 최근에는 자재수급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한 응답업체들이 상당수 나타남.
 - 수도권(71.7→76.0)은 전월 대비 상승(+4.3p), 지방(81.7→85.2)도 소폭 개선됨(+3.5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3년 12월 평가	55.8	46.1	48.0	59.0	42.4	70.0
	2024년 1월 전망	56.4	45.5	56.0	56.6	60.6	68.3
자재수급	2023년 12월 평가	82.6	72.3	76.0	85.2	69.7	93.3
	2024년 1월 전망	80.8	68.1	78.0	82.0	66.7	95.0



〈자재수급〉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 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임
-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 5)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 6) 전년인 2022년 상반기는 특히 세계적 공급망 이슈 및 건설자재의 수요난이 극도로 부각된 시기였기에 금년의 조사치와 직접 비교가 쉽지 않음을 감안해야 함
- 7) 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을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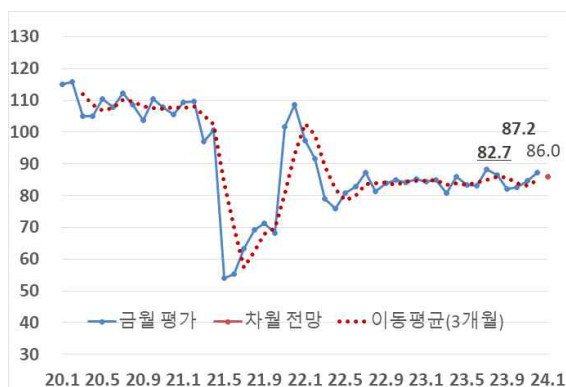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와 장비수급지수는 전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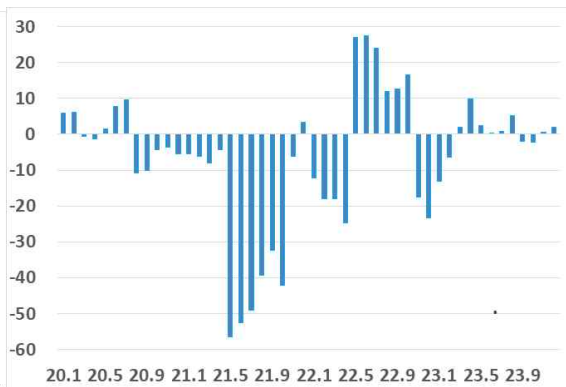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66.3(64.4→65.7)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1.3p), 차월(65.7)에도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0.6p). 여전히 전년 동월(59.7)보다는 높지만 전반적으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수도권(65.2→58.0)은 전월에 이어 하락했지만(-7.2p), 지방(64.1→69.7)은 전월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5.6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7.2(84.6→87.2)로 전월과 큰 차이는 아니었으며(+2.6p), 차월에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1.2p). 참고로 건설기계자격증으로 기술자 보유요건을 충족중인 일부 업체들은 장비 임대 시 고용보험 등과 관련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음.
 - 수도권(87.0→82.0)은 전월보다 하락한 반면(-5.0p), 지방(83.8→89.3)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5.5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3년 12월 평가	66.3	59.7	58.0	69.7	51.5	78.3
	2024년 1월 전망	65.7	55.5	66.0	65.6	66.7	73.3
장비수급	2023년 12월 평가	87.2	85.3	82.0	89.3	75.8	103.3
	2024년 1월 전망	86.0	77.0	84.0	86.9	72.7	100.0



〈건설장비수급〉



〈건설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3년 1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42.4	40.8	42.0	42.6	39.4	48.3
	차월 전망	39.5	33.5	50.0	35.2	45.5	35.0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40.7	42.4	34.0	43.4	27.3
		차월 전망	34.9	34.6	56.0	26.2	54.5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36.0	37.2	48.0	31.1	45.5
		차월 전망	32.6	32.5	50.0	25.4	51.5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52.3	55.5	46.0	54.9	39.4
		차월 전망	48.3	46.1	62.0	42.6	60.6
	자금조달	금월 평가	55.2	53.4	54.0	55.7	48.5
		차월 전망	47.1	44.0	52.0	45.1	48.5
건설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59.9	56.0	54.0	62.3	45.5
		차월 전망	58.1	49.2	60.0	57.4	57.6
	인력수급	금월 평가	66.9	62.8	56.0	71.3	54.5
		차월 전망	69.8	63.4	66.0	71.3	63.6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55.8	46.1	48.0	59.0	42.4
		차월 전망	56.4	45.5	56.0	56.6	60.6
	자재수급	금월 평가	82.6	72.3	76.0	85.2	69.7
		차월 전망	80.8	68.1	78.0	82.0	66.7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66.3	59.7	58.0	69.7	51.5
		차월 전망	65.7	55.5	66.0	65.6	66.7
	장비수급	금월 평가	87.2	85.3	82.0	89.3	75.8
		차월 전망	86.0	77.0	84.0	86.9	72.7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